

Camino De Santiago 를 걷고 와서

구 요섭

K 형,

벌써 여름입니다. 늦오후 햇살은 따갑고 먼산 접동새 울음 소리에 졸음이 몰려 오는 성하입니다.

흰 왜가리 한 놈 논둑에 외다리로 서서 고개를 접고 시간을 정지 시키고 있습니다. 가끔 바람 한자락 개울가 미류나무를 스치고 갑니다. 그간 적조했습니다. 뜨거운 이 시절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

전 지난 가을 9 월 25 일 부터 10 월 26 일 까지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 성지를 다녀왔습니다. 32 일 동안 800km 를 걸었지요. 순례의 종착지 산티아고 콤포스텔라에서 이틀을 쉬고 대서양이 내려다 보이는 끝마을 휘니스테레까지 갔다온 35 일간의 여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뭐하러 갔었느냐고들 묻곤 합니다. 뭐 특별한 답은 없습니다. 그저 더 늙기 전에 한번 실컷 걷고 싶었지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바닥으로부터 아주 멀리 벗어나 걸으면서 살아온 날들을 한번 되돌아 보고 싶었지요. 또 이제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 할수 있을까도 궁리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로마와 더불어 세계 기독교 3 대 순례지의 하나인 까미노 데 산티아고(Camino De Santiago)로 간 거지요. 여행을 갔다 온지 넉달이 지난 아직도 그 산티아고 길 위에 마음이 떠돌고 있는걸 보면 적절한 선택 이었고 좋은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야고보(영어로는 James, 불어는 Jacques, 독어는 jacob, 스페인어는 Diego)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한 분이지요. 요한 복음서를 쓴 요한의 형입니다. 그의 어머니 살로메가 성모 마리아의 친척이었으므로 예수님과도 친척간이고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이베리아 반도, 지금의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파하러 떠납니다. 7 년간의 전도 여행 후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야고보 사도는 로마군에 붙잡혀 참수 당합니다. 기원후 44 년의 일이지요. 예수님의 제자 중 첫 순교자 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제자들은 성인의 유해를 훔쳐 지중해를 건너 이베리아반도 갈리시아 지방으로 가서 묻습니다. 그 후 800 년간 야고보 성인은 잊혀졌습니다.

9 세기에 한 은둔자가 하늘의 계시를 받고 "별이 비추는 들판 (캄푸스 텔라)" 에서 야고보 성인의 관을 찾아 냅니다. 훗날 에스파냐의 알폰소 국왕이 이 무덤 위에 성당을 지었습니다. 이후 콤포스텔라(Compostela)로 이름이 바뀐 이 성지는 기독교 세계에 그 명성이 널리 퍼져 11-14 세기에 순례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오늘날에도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성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Santiago Compostela) 까지는 유럽 각지로부터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든 수백 km 를 수십여일 걸어 가야만 합니다. 오늘날 이 길은 전세계의 기독교 순례자들 뿐 아니라 도전과 모험을 좋아하는 비 기독교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길을 걷는 동안 특별한 영적인 각성을 경험하게 되고 삶의 활력을 되찾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길은 사유와 명상의 길이고 모험의 길이며 영적 신비에 가득찬 길인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걸었던 길은 프랑스 길 (Camino Frances)이라고 불리는데 약 800 km 됩니다. 남 프랑스 "생장 피에드 폴(ST Jean Pied de Port)"에서 출발하여 피레네산맥을 넘어 스페인 동북부 나바라(Navara)주와 바스크 지역을 지나고 카스티야의 광활한 고원 지대를 넘어서 가르시아 지방 산티아고 콤포스텔라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길은 밤에는 은하수를 따라서 서쪽으로 서쪽으로 걸어갔기에 "은하수 길"이라고도 하고 중세에 왕들이 순례했던 왕의 길(Camino Real) 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순례일정을 날자 별로 정리 해보았습니다. 긴 여정에서 겪은 많은 일들과 느낌들을 글로 옮기는 일은 사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렇긴 해도 몇 가지 단상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 길 위에서 가끔 형을 생각했으므로 형한테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 35 일간 걸어 지나갔던 도시들 >

9/24(목) 새벽 4 시 20 분 프랑크푸르트 기차역 출발, 파리를 경유 오후 7 시 프랑스 남쪽 국경마을

쟁장피에드폴(St, Jean Pied-de-Port) 도착.
 9/25(금) 첫날, 6:00am 쟁장피드포르 출발-
 15:30pm 론세스발레스(Roncesvalles)도착, 걸은
 시간 9 시간 30 분, 총 걸은 거리 27km.
 9/26(토) 2 일째, 6:50am 론세스발레스-
 13:50pm 라라소냐 (Larrasoana),7 시간, 25.4km
 9/27(일) 3 일째, 6:50am 라라소냐 -
 14:00pm 씨주루메노루(Cizur Menor),7 시간,
 21.4km
 9/28(월) 4 일째, 6:50am 씨주루메노루 -
 12:40pm 프엔테레이나(Puente La Reina), 6 시간,
 21km
 9/29(화) 5 일째, 6:40am 프엔테레이나 -
 12:40pm 에스테야(Estella) 6 시간, 21km
 9/30(수) 6 일째, 6:50am 에스테야 -
 12:30pm 로스아르코스(Los Arcos),5 시간 40 분,
 21.3km
 10/1(목) 7 일째, 6:50am 로스아르코스 -
 2:30pm 로그로뇨(Logrono),7 시간 40 분, 28km
 10/2(금) 8 일째, 6:40am 로그로뇨 -
 3:00pm 나헤라(Najera), 8 시간 20 분,31.2km
 10/3(토) 9 일째, 6:25am 나헤라 -
 1:00pm 산토도밍고(Santo Domingo),6 시간 30 분,
 21km
 10/4(일)10 일째, 6:15am 산토도밍고 - 12:40pm
 벨로라도(Belorado),6 시간 25 분, 23.3km
 10/5(월) 11 일째, 6:25am 벨로라도 - 1:30pm
 아헤스(Ages),7 시간, 27.5km
 10/6(화) 12 일째, 6:50am 아헤스 - 12:30pm
 부르고스(Burugos), 6 시간, 21km.
 10/7(수) 13 일째, 6:50am 부르고스 - 3:20pm
 혼타나스(Hontanas), 8 시간 30 분,29km.
 10/8(목) 14 일째, 6:20am 혼타나스 -
 2:30pm 보아디아(Boadilla), 8 시간 10 분, 31.5km
 10/9(금) 15 일째, 6:30am 보아디아 -
 1:30pm 까리온(Carrion), 7 시간,26.5km
 10/10(토) 16 일째, 6:30am 까리온-
 2:30pm 테라디오스(Terradillos), 8 시간,27.6km
 10/11(일) 17 일째, 6:15am 테라디오스 - 1:00pm
 베르시아노스(Bercianos), 6 시간 40 분, 23km
 10/12(월) 18 일째, 7:10am 베르시아노스 -1:00pm

만시라 (Mansilla), 6 시간, 21km
 10/13(화) 19 일째,7:15am 만시야 - 1:30pm
 레온(Leon), 6 시간 15 분, 20km
 10/14(수) 20 일째, 6:20am 레온 - 12.40pm 산마틴(San
 Martin) 6 시간 20 분,26km
 10/15(목) 21 일째, 7:30am 산마틴 - 2:30pm
 아스토르가(Astorga),7 시간, 25km
 10/16(금) 22 일째, 6:50am 아스토르가 - 1:30pm
 라바날(Rabanal),6 시간 40 분, 22km
 10/17(토) 23 일째, 7:30am 라바날- 3:40pm
 모리나세카(Molinaseca), 8 시간, 30km
 10/18(일) 24 일째, 7:15am 모리나세카 - 4:00pm
 비아프랑카(Villafranca),9 시간 15 분, 32.8km
 10/19(월) 25 일째, 6:30am 비아프랑카 - 2:00pm
 라파바(La faba), 7 시간 30 분, 24km
 10/20(화) 26 일째, 8:20am 라화바 - 4:50pm
 트리아카스테야(Triacastela), 8 시간 30 분,26km
 10/21(수) 27 일째, 7:20am 트리아카스테야 -
 사리아(Saria), 6 시간, 19.5km
 10/22(목) 28 일째, 7:30am 사리아 - 2:30pm
 포르토마린(Portomarin), 7 시간, 23km,
 10/23(금) 29 일째, 6:30am 포르토마린 - 3:30pm
 카사노바(Casanova), 9 시간, 32.6km
 10/24(토) 30 일째, 7:00am 카사노바 - 2:30pm
 아르주아(Arzua), 7 시간 30 분, 25km
 10/25(일) 31 일째, 6:30am 아루주아 - 2:30pm
 아르카(Arca), 8 시간, 29km
 10/26(월) 32 일째, 7:30am 아르카 - 12:30pm 산티아고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 5 시간, 18.5km
 10/28(수) 35 일째, 산티아고 콤포스테라 -
 휘니스테레(Finisterre)

< 피레네산맥>

남프랑스 국경의 작은 산간 마을 쟁장피드폴에 도착
 하면 우선 먼저 순례자 협회에 가서 등록을 하고 순례자
 여권을 받으면 이제 공식적으로 산티아고 순례자 신분이
 됩니다. 이 순례자 여권을 소지한 사람만이 순례자를 위한
 전용 숙소(알베르게)에서 잠을 잘 수 있고 순례자들에게만
 제공 되는 싸고 푸짐한 저녁 식사를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여행 중 묵어가는 알베르게나 또는 성당, 수도원 에서
 각기 고유한 문양의 스탬프를 받아 자랑스러운 추억거리가
 되고 소중한 기념물이 되지요. 산 안개가 자욱한 새벽 6 시

썸장피드폴의 알베르케 를 출발, 1,000 년 전 로마인이 초석을 깬 시타델 거리 돌길을 걸어 스페인 성벽문을 지나면 바로 피레네산맥으로 들어가는 산길이 시작됩니다. 피레네산맥은 우리네 산과는 달랐습니다. 부드러운 능선이 파도처럼 굽이치고 경사가 완만한 산중턱은 초원이 널직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길은 목장의 초원 사이로 굽이굽이 올라 갑니다. 소똥이 여기저기에 질퍽하고 산골짜기 에서 피어 올라오는 안개엔 소똥 냄새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새들이 노래하고 이따금 워낭 소리도 들려옵니다. 9 시간을 걸어서 마침내 피레네산맥을 넘어 스페인 첫마을 론세스발레스 (Roncesvalles)에 도착. 가톨릭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알베르케에 투숙 합니다. 이 숙소엔 운동장 만한 방 하나에 2층 침대 100 여 개가 들어차있어서 순례 첫날 여행자들의 기를 단번에 죽이는 곳입니다. 각 나라에서 온 순례자들이 남녀노소 구별 없이 섞여 자야 합니다. 손을 뻗으면 옆 침대에 닿습니다. 아예 침대를 붙여 놓은 곳도 있어서 처음 만난 사람 끼리 본의 아니게 동침을 경험 하기도 하는 곳 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 옆엔 뚱뚱한 독일 아줌마가 밤새 코를 골며 자서 별불일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수도원 성당에선 순례자를 위한 미사가 있어서 무사히 순례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도 받고 각오도 다집니다.

<배낭>

여행의 하루는 보통 새벽 5 시에 일어나 시작 합니다. 맑을 때는 수십여명, 적게는 5-6 명이 한방에서 자니까 밤새 코고는 소리 침대가 삐걱 거리는 소리에 잠을 잔 건지 만 건지 모르지요. 늦게 일어나면 화장실 사용이 편치 않으니깐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야만 합니다. 6-7 시쯤 알베르케를 나설 때 새벽 공기는 싸늘 하고 하늘에선 별이 쏟아질 듯 빛납니다. 랜턴을 비춰가며 새벽잠에 깊이 빠져있는 마을을 지나고 농촌 길을 걷습니다. 동쪽 하늘이 별정계 물들어 올 때까지 2-3 시간 쉬지 않고 걸으면 온몸은 땀에 젖고 마음은 더없이 평안해 집니다. 50 리터 짜리 배낭은 돌덩어리를 넣은 것 처럼 무겁습니다. 침낭, 비옷, 옷가지들, 약봉다리, 랜턴과 세면도구 등등.. 조금이라도 무게를 줄이려고 며칠을 궁리하고 챙기고...더 이상 뺄 것도 넣을 것도 없이 꾸린 배낭입니다. 뭘 때 마다 한번씩 이를 악물지만, 일단 메고 나서 허리밴드를 알맞게 조이고,

어깨 끈을 조절해서 등에 밀착시키고, 가슴 끈을 채우고, 마지막으로 허리를 바로 세우고 몸을 한번 주슬러 배낭과 등 사이에 빈틈이 없음을 확인하고 나서 걷기 시작 합니다. 한 30 여분 걸어서 호흡과 보폭이 안정되면 배낭의 무게는 의식 되지 않습니다. 배낭이 몸의 한 부분이 된상태이지요. 발걸음은 리듬에 따라 저절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얼마를 걸었을까? 날이 밝아오고 심한 허기가 느껴 옵니다. 안내 책과 지도를 보고 빠(Bar)가 있는 마을 까지를 가능 합니다.우리네 주막집격인 빠에 이르면 배낭을 내려놓고 우선 커피(카페네체라고 함) 한잔을 시킵니다. 어제 먹다 남은 빵을 먹거나 치즈나 초리소 (스페인 소시지를 얇게 썰은것)를 사이에 끼운 바케트 샌드위치를 주문해먹습니다. 점심으로는 생맥주나 와인 한잔을 곁들이기도 하지요. 여행 내내 어쩔 수 없이 씹어야 했던 이 스페인 바케트는 어른 팔뚝만합니다. 2 등분을 해서 아침 점심을 해결하게 되는데 빵 껍질이 어찌나 딱딱한지 첫날 입천장이 훌렁 까졌을 정도입니다. 순례자들이 지나가는 도시나 오래된 마을에는 길가에 또는 성당 앞 광장에 수도꼭지가 달린 샘물 터가 있고 주위에 벤치가 놓여있어서 지친 순례자들이 식사도 하고 쉬어 갑니다. 1,000 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이 길은 일찍이 인류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있고 국가로부터 잘 관리되고 있어서 오늘날 이 길을 걷는 순례자들을 감동케 하고 그들의 감사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 팜프로나(Pamplona)인상>

론세스바레스로부터 서쪽으로 그라논(Granon)까지 약 200 km 에 이르는 나바라(Navara)주는 포도밭, 올리브 밭 등 야트막한 산과 들판이 아름다운 농업지역 입니다. 아침은 늘 안개가 끼어있고 초가을 햇빛은 뜨겁습니다. 들판엔 늘 시원하게 바람이 불어 걷기엔 더 없이 좋습니다. 길가 포도밭에는 아직도 추수가 끝나지 않은 포도들이 탐스럽게 달려 있는데 꿀보다도 더 답니다. 목이 마른 순례객들은 주저 없이 배불리 따 먹습니다. 흠쳐 먹는 것 이지만 눈치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전에 이렇게 단 포도를 실컷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나바라주 대표적인 도시 팜프로나(Pamplona)는 "소몰이 축제(san fermin 축제)"로 유명한 곳이지요. 이 축제는 매년 7 월 6 일부터 14 일까지 열리는데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아침 8 시에 구시가지 좁은 골목길을 소들과 사람들이 어울려 광란의 질주를 벌이는 것입니다. 더러는 소뿔에 바쳐 죽기도하고 폭주하는 사람들 발길에 밟혀 다치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이 위험한 축제에 열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TV 에서 보여주는 바로 그 축제입니다.

거대한 성벽에 둘러 쌓인 구 시가지를 걷다 보면 시간은 수 백년 뒤로 돌려 놓은 듯 합니다.

좁은 골목길은 뽕질뽕질 닳은 돌바닥입니다. 손을 뻗치면 맞닿을 것 같이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아직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2층 베란다에 나와 앞집 옆집 이웃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정겹습니다.

스페인인 축제의 나라라고 합니다. 일년 내내 크고 작은 축제가 동네마다 도시마다 끊임이 없습니다. 옛날 어떤 자비로운 왕께서 교수형을 앞둔 죄수에게 마지막 소원을 물었는데 그 죄수는 축제가 없는 날 죽고 싶다고 했고 그 죄수는 결국 목숨을 부지했다고 합니다. 도시의 골목길은 늘 지난밤 축제의 흔적들이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습니다. 쓰레기와 술병이 텅굴고 엉클어진 관능의 냄새가 짙게 풍겨 나옵니다.

<순례자 조각상>

고대 로마 도시 프엔테 레이나라 넘어 가는 페르돈(Perdon) 언덕엔 그 유명한 순례자상이 서 있습니다. 여러 명의 순례자들이 나귀에 짐을 싣고 어떤 이는 말을 타고 어떤 이는 긴 지팡이를 짚고 바람 부는 이 언덕을 넘어가는 모습을 두꺼운 철판을 깎아 세워 놓았습니다. 개나리 붓짐을 지고 허술한 옷을 입은 중세 순례자들의 고달픈 모습은 그들이 지나 갔던 고난의 길을 가는 오늘의 순례자들을 감격케 하기에 충분합니다. 성야고보상과 순례자 조각상 그리고 십자가상은 이 길고 긴 순례길이 지나가는 작은 마을의 성당 앞 광장, 도시의 공원,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산맥의 정상엔 어디에나 서 있어서 지치고 의기소침한 오늘의 순례자들이 그 앞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며 용기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프엔테레이나는 도시 한가운대를 흐르는 아르고강 위에 걸린 돌다리가 아름답습니다. 강이라고 해봐야 우리네 중랑천만 한데 로마시대에 돌로 쌓아 올린 다리의 둥근 아치가 강물에 비치어 우아합니다. 이 돌다리는 산티아고 가는 길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돌다리의 전형이라고 합니다.

<No Pain No Glory>

순례 첫날 부터 양쪽 엄지발가락 사이에 물집이 생겼습니다. 내 나라에선 윈 종일 산을 걸어도 생긴 적이 없었지요. 이 발바닥 물집은 순례자들이면 누구나 지불해야 하는 순례세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새제 날엔 발뒤꿈치까지 생겨 왼발에 5개 오른발에 6개가 생겼지요. 고통 없이 영광

없다 (No Pain No Glory!)는 글이 어느 마을 약방 원도에 붙어 있었는데 그 고통과 영광은 겪어봐야만 압니다.

하루의 걷기를 끝내고 숙소로 도착하면 샤워하고 땀에 젖은 옷을 빨아서 빨랫 대에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발바닥을 치료 합니다. 바늘(낚시바늘 같이 생긴 바늘끝에 실이 붙어있음)로 물집을 따고 소독약을 바르고 실을 꿰워 두어 밤새 물이 마르도록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일을 보고 나면 꾸덕꾸덕해진 상처에서 실을 뽑아 내고 밴드 테이프로 또는 반창고로 온 정성을 다해 붙입니다. 한 30분 걸리는데 아침에 일어나 하는 가장 큰일이자 고역이지요. 매일 10-15 개를 붙이다 보면 늘 밴드가 모자라 다른 사람들 한테 얻기도 하고 숙소 비상약 상자 안에 사람들이 남기고 간 것을 쓰기도 합니다. 큰 마을을 지날 때마다 약방을 찾아 밴드와 바늘을 사는 일은 순례 여행 중 빠트릴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입니다.

이 산티아고 카미노에서 전 아마 4-500 여개의 밴드 테이프를 소비했을 겁니다. 평생 쓴 것 보다도 많이 썼고 앞으로 이보다 더 많이 쓸 일도 없을겁니다. 바늘도 20개는 더 샀을 겁니다. 물집 따는 솜씨도 늘어서 찢찢매는 외국 순례자들을 제가 치료해주면 그들은 훌륭한 외과 의사라며 손가락을 치켜세우곤 했습니다. 밴드를 잔뜩 붙이고 나서 등산화를 신는일도 큰 고역이었습니다. 첫발을 디딜 때 이를 악물고 조심 조심 걷기 시작합니다. 신작로에 자갈은 왜 그렇게도 많은지 ! 잔돌을 밟으면 펄쩍 펄쩍이 아프니까 온 신경이 발끝에 가 있습니다. 사서 하는 고생이니까 누구 땀도 할수 없고 그저 야고보 성인께 기도했습니다. " 성인이시여 이 처량한 놈 한번 굶어보시고 어떻게 좀 도와 주십시오 ! " 얼마쯤 걷다 보면 발바닥 감각이 마비되어서 날카로운 아픔은 없어지고 그럭저럭 걸을 만 해집니다. 이제 걸음걸이 속도를 올려야 할 때입니다. 허기도 지고 목도 타지만 꼭 참고 계속 걷습니다. 쉬었다가 다시 걸을 때 통증은 출발할 때 보다 더 끔찍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발걸음은 계속 나아갑니다. 그렇게 또 얼마를 걸으면 이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스님들이 탁발하며 하는 행선의 경지가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물집이 굼기라도 하면 정말 큰일입니다 ! 그래서 밤마다 진통소염제를 먹고 잤습니다. 여행의 막바지 7일간 갈리시아 지방의 빗속 길을 걸을 때는 매일 진통제를 먹어야만 했었지요. 진통제를 이렇게 많이 먹어본 것도 난생 처음이지요.

<길에서 만난 사람들>

순례는 혼자서 걷는 여행입니다.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건지만 말들을 극도로 피합니다. 명상과사색의 경지를 방해할까 봐 서로서로 조심 합니다. 순례자들은 스스로를 깊은 고독 속으로 침잠 시킵니다. 그렇긴 해도 그렇게 외롭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혼자 걷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고 자신과 두런 두런 이야기 하면서 걷노라면 또 다른 내 실존과 같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 어두운 숲길을 걸을 때 또는 햇빛이 작열하는 평원을 건널 때 내 영혼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카미노(순례길)에선 순례객이나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 "올라(hello)" 하면서 인사하고 "부엔 까미노(Buen Camino ! Good journey !)"하면서 헤어 집니다. 바람과 더불어 걷다가 다시 만나기도 하고 다시는 못 만나기도 합니다. 여행의 실상이고 어쩌면 인생의 참 모습이기도 합니다. 순례 길을 걸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주로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사람들이고 더러 일본사람도 만나고 우리나라 순례자들도 근년에 들어 부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해외여행에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서양사람들은 마음이 넓게 열려 있습니다. 겸손하고 친절합니다. 순수하고 진솔합니다.

오랜 전통과 문화의 멋이 자연스럽게 인격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들 같이 선진국민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몇 사람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71 세의 일본인 사또취상, 스케치북과 물감을 든 비닐 봉다리를 들고 유유자적 걷던 이름 모르는 일본인 노인 화가, 아프리카로 히말라야로 여행을 즐기며 사는 77 세의 프랑스 노인 올리비에, 50 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잃고 마음을 가누지 못해 이 길을 걷고 있는 71 세의 독일 노인 칼 하인츠, 늘 예의 바르고 활달한 아일랜드 젊은이 존, 내 아픈 다리를 안스러워 하며 진통제를 나누어주던 독일 국경수비대 경찰관 군나르. 그 중 한 프랑스 할머니와의 만남이 또한 인상 깊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르퐁이(Chemin du Puy) 길을 이미 800 km 를 걸어왔고 산티아고까지 800km 를 더 걷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나헤라로 가는 도중 어디쯤에서 처음 그녀를 만났을 겁니다. "올라" 하면서 지나쳐가는 할머니는 반바지 차림이었는데 깡마른 몸에서는 찬바람이 나는 듯 했습니다. 이지적인 얼굴에선 오랜 순례 여행에서 단련된 결연한 카리스마가 넘쳐 보였습니다. 60 세쯤 되었을까 ? 우리는 한방에서 자기도하고 바에서 마주치기도 하고 우연히 같이 걷기도 했지만 별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와 내가 좀

가까워진 건 어느 숙소에서 빨래를 거두워 들일 때 있었던 일 후부터였습니다. 알베르게에는 실내나 실외에 빨래터가 있고 마당엔 빨래 줄이 있어서 순례자들이 옷을 빨아 널어 놓고는 주위에 앉아 먹고 마시기도 하고 책을 보며 쉬기도 합니다. 빨래 줄엔 늘 동서양 남녀노소의 속옷과 겉옷 들이 각양각색으로 걸려있어 마치 국제 속옷 전시회를 하는 것 같지요. 보고 있노라면 묘한 기분이 드는 풍경입니다. 서양 여자들 속옷은 대체로 색깔이 바래고 꼬질꼬질했습니다. 실밥이 뜯어 지고 헤어진 것도 있고 오래 입어서 더러는 고무줄이 늘어진 것도 보였습니다. 검소한 삶의 한 모습 일겁니다.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양징맞은 것은 젊은 여자 것이거나 동양 여자들 것입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여자 속옷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자속옷도 시장규모가 크고 국제적인 패션 트렌드가 있는 줄은 알았지만 이번에 톡톡히 보고 배웠습니다. 그날 빨래 줄에 널어놓은 내 속옷 위에 웬 하얀 여자속옷이 살짝 포개어 겹쳐져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빨래를 걸을때 그것이 그녀의 것인 줄 알게 되었는데 그녀의 속옷을 내가 건어서 건네주게 되었고 그때 처음 그녀는 나에게 웃음을 보냈습니다. 부드럽게 웃음짓는 그녀의 얼굴은 살짝 붉은 색으로 변져 있었습니다. 그 뒤 몇 번인가 우리는 길을 걷다가 더 조우했고 강이 내려다 보이는 알베르게 뺨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도 나누었지요. 다음날 아침 일찍 그 알베르게를 떠난후 우리는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산티아고 콤포스텔라에 도착하게 되면 지난 30 여일 동안 길에서 만나고 헤어졌던 많은 사람들을 대성당앞 광장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모두들 얼싸안고 재회를 기뻐하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한 것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별을 아쉬워 합니다. 순수한 시간 속에서의 만남이었음으로 그 어떤 이별보다도 맑고 아름답습니다. 다시 만날 것을 기대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회자정리 만유무상!

< 추석달 >

10/3(토) 나헤라(Najera) 알베르게에서 새벽 길을 나섰을 때 서쪽 하늘엔 둥그런 달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그 달이 내 동네에서도 밤새 밝았을 추석달 인것을 알았지요. 여행 10 일째인 다음날 새벽 산토도밍고 교외 들판 길로 접어들었을 때 구름 한 점 없는 이베리아 중천엔 둥근 보름달이

눈부시게 떠 있었습니다. 온 세상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신비스런 푸른빛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달밤을 걸어 보았을까 ? 전기불이 없던 어린 시절 나즈막한 초가집 지붕위로 쏟아지던 보름달빛이 이만 했을 것입니다. 어렸을 적 그 까마득한 기억 속으로 얼마 동안이나 걸었을까 ? 푸르스름한 달빛호수를 헤엄 치는 것 같았습니다. 먼동이 터오고 꿈결 같은 달빛이 사위어 갈 때 여기가 이역만리 낯선 곳이라는 사실이 울컥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 메세타 고원>

부르고스(Burgos)를 지나 카스티야(Castilla) 지방에 들어서서 레온(Leon) 까지는 그 유명한 메세타 고원입니다. 추수가 끝난 밀밭과 대부분 자갈 투성이의 황무지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먹구름은 수시로 몰려오고 몰려가고 광풍이 쏘나기를 쏟아 붓고는 감쪽같이 살아지기도 합니다. 쌍무지개가 여기저기에서 떠오르고 사라집니다. 메마른 바람이 간단없이 불어와 뺨과 입술이 터지고 손끝 마다 갈라져 쓰리고 아픕니다. 이 메세타 고원은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최대의 난관입니다. 꼬박 일주일을 걸어 통과해야 하는데 하루 7-8 시간 걷는 도중엔 쉬어 갈만한 변변한 마을도 없습니다.

이 악명 높은 메세타 구간의 하일 라이트는 까리온(Carrion)에서부터 칼자디아(Calzadilla)까지의 17.2km 구간입니다. 4-5 시간 걷는 도중엔 산도, 마을도, 나무 그늘도, 목을 추길 샘물도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는 희미합니다. 지평선을 향해 끝도 보이지 않는 외길을 걷노라면 어질 어질 현기증이 납니다. 어떤이는 숨이 막힌다고 하고 누구는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듯 하다고 하는 곳입니다.

신기하게도 마을은 갑자기 나타납니다. 평탄하기만 하던 들판에 협곡이 나타나고 저 계곡 밑에 성당 종탑과 작은 마을이 웅기종기 모여있는 것이 보입니다. 어떤 이는 이 광대하고 황량한 메세타의 스케일에 질려 걷기를 포기하고 탈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 늘 좁은 산속에서만 살아서인지 이곳 메세타에서 비로서 시간과 공간에서 해방된 기분을 얻었습니다. 이 순례길에서 처음으로 온몸이 터질 것 같은 자유의 충만함도 느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생각한 곳도 이곳이었습니다.

<Bed Bug(빈대)>

어디에서부터 인지 팔과 목 근처가 무엇인가에 물려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벌레(Bed Bug) 즉 빈대에 물린 겁니다. 40 년 전 군대 훈련소에서 물려 본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땐 디디티(DDT) 가루를 온 몸에 뒤집어 쓰고 잤지요. 지금은 지구 상에서 살아진지 오래된 이 살인적인 농약을 뒤집어쓰고 살아낸 우리의 인생이 씁쓸하기도 하고 한편 자랑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스페인 빈대는 한국 순례자들만 무차별 물어서 어떤 한국 사람은 노이로제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 또한 산티아고 순례길이 주는 시련이자 선물입니다. No Pain No Glory ! 어쩔것인가...난 수퍼마켓에서 모기용 스프레이를 사서 침대에, 침낭에, 온몸에 뿌리고 자야만 했습니다. 라바날(Rabanal)은 1,550m 높이의 레온산을 넘어가는 산 중턱에 있는 작은 휴양 마을입니다. 소나무와 도토리나무 숲 속에 자리잡고 있는데 대평원을 내려다보는 전망이 시원스럽고 사위가 고요해서 지친 순례객들이 한 이삼일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저도 며칠 쉬고 발바닥이 낡으면 다시 걷고 싶었던 곳이지요 이 라바날 알베르게는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운영 하는데 수도원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대문 바로 앞 길 건너편에는 마굿간을 개조한듯한 작은 경당이 있는데 저녁 8 시에는 수도원 수사 두 분이 그레고리안 성가로 미사를 드리는데 참으로 감동스러웠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르는 성가는 그날 제 영혼을 맑게 씻어 주었습니다.

라바날에서는 풍경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베르게에선 베드버그에 물린 사람들에게 새옷을 빌려주고 입고 있었던 옷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옷가지들을 가져다 세탁을 해주고 배낭과 침낭 등은 큰 비닐백에 집어넣어 소독약을 뿌려 밤새 별도로 보관했다가 다음날 아침 내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자원봉사자 부부가 다 해주었는데 이렇게 극진하고 정성 어린 대우를 평생 그 어떤 곳에서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영국인 호스피탈레로(알베르게의 자원봉사자) 부부는 살아있는 천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젠가 다시 그곳에 가게 되면 반드시 그분들을 찾아보고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 갈리시아 지방으로 넘어가는 길>

여행을 시작한지 25 일쯤 지나면 스페인 북서부 갈리시아 지역으로 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장마비가 한창인 이 지역을 통과해야 산티아고 콤포스텔라에 도착합니다. 갈리시아 지방으로 들어가는

길은 카스티야 지방과 갈리시아 지방 사이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험준한 산맥의 중간 허리인 오세브레이로 고개(1,340m)를 넘어가야 합니다. 프랑스 길에서의 마지막 최대의 난관입니다. 갈리시아 지역은 날씨도 풍물도 카스티야 지방 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 지역은 9-10 월이 우기 입니다. 어제부터 내리기 시작하는 비는 하루 종일 내리다 말다 합니다. 깜짝 햇빛도 나고 날씨는 변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아예 윈 종일 우의를 입고 걷습니다. 발은 비닐봉투로 싸매고 등산화를 신습니다. 계곡은 밤새 내린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귀가 먹먹합니다. 왜 이런 고생을 하는 것일까 ? 감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6.25 전쟁 시 우리 부모들의 피난길이 이러했을 것입니다. 얼마를 걸었을까... 어둠 속에서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희뿌연 동이 터옵니다. 가파르 오름길을 2 시간 정도 오르니 마침내 산 윗 마을 화바(Faba)에 도착 합니다. 오세부레이로 고개 마을까지는 아직도 2 시간을 더 올라가야 하지만 더 이상 오를 힘이 없습니다. 독일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알베르게에 짐을 풀기로 합니다. 지치고 허기가 저서 손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젖은 옷은 코인을 넣고 세탁기로 빨고 말립니다. 샤워도 미루고 침낭 속에 몸을 누입니다. 온몸이 덜덜 떨리고 이마는 불덩이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 오세브레이로 (1,330m)에 도착 할 때 까지도 비는 계속 쏟아지고 산정상엔 안개가 자욱해 한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세브레이로 (O Cebreiro)에는 9 세기에 세워진 산타마리아 데 레알(Santa Maria de Real)성당이 있습니다. 이 품위있는 성당에는 1,300 년 전 미사 중에 빵과 포도주가 살과 피로 변한 기적이 일어났고 그 살과 피를 두개의 병속에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당시의 성배와 성반 역시 보관되고 있다고 하는데 갈 길이 바쁜 나그네는 그 알현을 다음기회로 넘기고 서둘러 갑니다. 갈리시아 지방의 산길은 꼭 우리 제주도 중산간길과 비슷했습니다.

< 부엉이 울음소리>

포르토마린(Portomarin)은 넓은 강이 흐르는 언덕위에 아름답게 자리잡고 있는 휴양 도시 입니다. 강이 내려다 보이는 알베르게에서 하룻밤을 자고 새벽 칠흙 같이 어두운 산길에 접어 들었을 때 숲 속에서 구구구구- 구구구구 - 부엉이가 울었습니다. 먼산에서도 부엉이는 계속 울어댔습니다. 얼마 만에 들어보는 부엉이 소리인가 ! 까마득히 잊어 버렸던

어렸을 적 기억이 깨어 났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앞산에서는 밤이 이슬하면 밤 부엉이가 울었습니다. 그땐 너무나 으시시 무서워서 혼자 뒷간에를 못 가고 형한테 때를 쓰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마을에서는 물론 그 어느 곳 에서도 들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요즘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면 가만히 귀를 기울여봅니다. 어디 아주 멀리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오지나 않을까 하고 말이죠.

<에필로그>

산티아고 콤포스텔라에 입성하는 날엔 기적 같이 날씨가 활짝 개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비에 폭 젖었고 너무나 지쳤고 모든 게 지긋지긋 해졌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날 만큼은 화창한 날을 주십시오 ! 그런데 마침내 들어주셨지요. 크나 크신 은혜을 입었습니다.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대성당 앞 오브라도이로 넓은 광장 곳곳엔 지친 순례객들이 신발을 벗고 더러는 배낭을 베고 들어 누워서 대성당을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가슴 벽차고 감격해 합니다. 많은 난관과 고독함을 극복해낸 스스로를 대견해 합니다. 환희에 가득 찬 영혼으로 서로 축하 인사를 나눕니다. 대성당 안 중앙 제대 뒷 쪽으로 돌아 지하로 내려가 마침내 야고보 성인 무덤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보살핌에 감사한 마음을 기도 합니다. 가슴속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 내립니다. 대성당 안으로 들어가는 문 위에는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알파"와 오메가"가 "오메가"와 "알파"로 그 순서가 바뀌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산티아고 콤포스텔라에의 도착이 끝(오메가)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알파)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원점으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산너머 산 그너머 또 산, 산 하늘 아래..." 어렸을 때 봄날 저 멀리 뽕얀 산들을 보며 부르던 동요를 생각 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나면 언제나 가슴속으로 애잔하게 스며오던 슬픔을 기억 합니다. 산들을 넘어 세월은 갔어도 까닭 없이 고이던 슬픔만은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삶이 이러 하듯 여행의 끝은 없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 에서 저는 이제 비로서 진정한 의미의 순례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예비순례자가 되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늘 건강 하시길 바랍니다.

2010 년 7 월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에서

*** 참 제자 마을 설립 목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웃들과 함께 겸손과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함

*** 복음적 실천 목표**

주제 ; 삼위일체 신비와 하느님의 가난

- 자기 비움
- 친교의 정신
- 가난의 정신
- 봉사의 정신
- 공동체적 영성의 삶

*** 사업방향 및 목표**

- **피정의 집** ; 머무르고, 쉬고, 기도하고,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적 나눔 터
- **노인 요양원** ;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며 응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의 터
- **환경 생태 공원** ; 하느님이 주신 자연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배움 터
- **관상 수도원** ; 젊고 활기찬 한국교회가 소홀 하기 쉬운 기도와 관상을 위한 기도의 터
- **포항 성모 자애원 마리아의 집** ; 이웃 사랑의 실천과 배움의 터

*** 참 제자 마을 조성 봉헌 안내**

* 순수 기부금; 837-21-0285-795 국민은행 양 명신

* 조건부기부금; 055-21-0724-082 국민은행 양 명신
(년6%금리적용 봉헌금 산정, 20011년12월 상환 예정)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권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화 ; 011-9961-3600 , 031-584-9117

팩스; 031-584-9117, e-mail ; yangthomas@naver.com

< 신립 및 입급 현황 > 2010. 6. 30. 현재

신립인원	신립금	납입인원	입급액
165	725,234,000	1,261	574,614,000

*** 대단히 감사합니다 ***

* 가톨릭 명동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 4억 원 중 회원님들의 협조로 1월18일 총 4억원을 상환하여 현재 대출 잔액은 없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에 진입로 공사 및 피정의 집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오니 주위에 권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누적 봉헌금액 (2010.6.30) ; 33,821,056원

*** 매일 12시 정오**

참 제자 회원 모두가 삼종기도, 참 제자 마을 조성을 위한 기도와 환자를 위한 기도를 같은 시간에 다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2010년 영명축일 미사 봉헌**

매월 영명 축일을 맞이하는 분에 대한 미사봉헌과 축하 파티가 진행됩니다.

앞으로 성인성녀의 주님에 대한 믿음을 본받아 더욱 더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하여 봅시다.

매월 15일 전 후 성체조배, 나눔 후 17시에 미사가 봉헌됩니다.

*** 참제자 마을 인허가 및 토목 공사 진행 건**

홍천군 모곡리 임야에 대한 진입로 등 제반 문제가 해결되어 8월부터는 토목, 건축 인허가 진행과 진입로 공사 및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10월에는 관리동 건물 약 80평에 대한 설계확정 및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동안 1차적으로 임야 구입에 봉헌하여 주시고, 많은 기도하여 주신 모든 형제자매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참제자 마을 공동 주거 택지 신청 안내**

모곡리 임야 앞에 위치한 938번지 밭 587평을 참제자 진입로로 일부 사용하고 참제자 마을을 위한 토지로 6월12일 2억2,500만원에 계약하였습니다.(잔금일자 ; 7/22) 60여평은 진입로로 사용될 예정이며, 나머지 527평 밭은 공동체가 생활할 수 있는 빌라를 지어 분양하는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토지를 구입하기를 원하는 분을 약 10분 정도 모집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8분이 신청하여 주셨고, 세대 당 토지 분양금액은 2,000만원입니다. (7월 30까지 국민은행 055-21-0724-082 양명신으로 입금)

토지에 대한 등기는 신청하신 분의 명의로 해 드릴 예정이며, 건물에 대한 사항은 추후 확정 예정입니다.

*** 홍천군 두미리 옥수수, 고구마 심기 노력봉사**

5월16(일) 홍천군 서면 두미리 밭 약 800평에 30여명이 고구마, 옥수수심기 노력봉사를 하였습니다. 땀을 흘리고, 서툰 농기구를 움직이며, 환하게 웃는 형제자매님의 모습에서 주님을 뵙는 착가을 하여봅니다. 가을에 수확하여 모든 회원이 조금씩 나누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신부님을 위한 기도 안내**

구 요비 신부님께서 프라도 회의를 위해 7월1일부터 7월 말까지 프랑스 리용을 방문하십니다. 주님의 은총과 영광이 구신부님께 함께하시기를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조사**

- 3월 ; 양 옥보 마끄리나 모친상 (오 영희님)
- 6월 ; 이 병주 요셉/전혜은 마리아라 장남 결혼
- 6월 ; 이 두희 미카엘/이 동무 헬레나 딸 결혼

*많은 기도에 감사드립니다.